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9년 9월호

통권 제 194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7,8월 교우소식

### 새 가족

- \* 이홍수(104구역), 종로구 가회동 145번지.
- \* 김혜경(302구역), 용산구 한남동 729-23.
- \* 송명숙(110구역), 종로구 평창동 293-1.
- \* 김영은(208구역), 성북구 정릉동 688-13번지 102호
- \* 강승철(101구역), 성북구 길음동
- \* 이영희(301구역), 서초구 방배동 2732-5
- \* 노태섭(106구역), 종로구 계동 77-1,
- \* 허하나·정명화(101구역), 종로구 화동 72.
- \* 이정현(203구역), 서대문구 홍제2동 청구(아) 111-902.
- \* 천승호(206구역),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389-8 로얄(아) 4-208호

### 입원

- \* 유연준 권사, 세란병원 928호.
- \* 이원호 교우(김정수권사 남편), 백병원 1102호.

### 별세

- ☞ 고 김만기성도 (60세, 정숙인교우 부군) 6일(목) 별세 8일 장례.
- ☞ 고 정복순씨(89세, 이윤희권사·정태봉교우 모친), 4일(토) 별세 6일(월) 장례.
- ☞ 고 유중현씨(88세, 유명옥권사 부친) 12일(주일) 별세 14일(화) 장례.

### 이 사

- \* 송영자 권사, 일산구 장항동 881번지 호수마을 아이파크 203동 305호

### 출 국

- \* 유옥근권사, 가족방문차 캐나다 출국(7.21-8월말)

### 감 사

- ☞ 황영태 목사, 26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김영석장로·최문수권사, 5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출 산

- \* 김은혜교우·고상요집사 (고문곤집사·김휴숙권사 차남), 14일 득녀.

### 순회 연주

- \* 이효종·김희진 장로, 대학합창단 영남지역 순회연주차 8/21 ~ 8/25.

### 전화번호 변경

- ☞ 유경재 목사, 010-2595-3802
- ☞ 황영태 목사, 070-8615-3395

## 생명을 살리는 일

안동전도대장 조정순 권사

저는 결혼 후 이영철 목사님의 인도로 안동교회에 등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벌써 3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영접 후 3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친정 여동생을 전도한 것 빼고는 한 명의 이웃도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빛진 자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나 자신에게 집이 멀어서 전도하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안동전도대에서 섬기라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큰 부담이 생기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목사님께 전도 교육을 받고 전도지와 작은 선물을 들고 김순희 권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2~3시간 정도 노방전도와 가정 방문 전도를 하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건네고 말을 붙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집의 대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 순간에는 차라리 안에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 교육을 받을 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들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병어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도 전도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계동에 사시는 박씨 성을 가진 자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일을 하는 남편과 사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성경책과 핸드백을 선물하기도 하였고, 식사에 초대하여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마음을 많이 여시기에 우리 교회 작은 음악회에도 초대하여 나오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오시겠구나 하는 그 때, 이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정 남동생의 자살로 인하여 이 가정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방문하여도 만나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봄까지도 전도는 한 사람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목요일 안동전도대의 전도하는 날만 되면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점점 지쳐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 안동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지만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윤정희 성도가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어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활력을 얻어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계동에서 골동품 샵을 오르신 김만기, 정숙인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반갑게 맞이해주신 부부를 보면서,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덤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집에 돌아가서 큰소리로 "나 전도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사님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품기에는 너무나 큰 마음이라 잘 몰랐었는데, 새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여 주님 안의 한 가족이 되자, 영혼에 대하여 더 애착이 가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가족으로 나오신 김만기 성도가 지난 목요일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안동교회가 전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동의 새로운 100년을 그렇게 인도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부 여름캠프를 마치며

교사 강수경

아동부에서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어린이 38명과 교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여름캠프에 다녀왔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좀 더 색다른 체험을 하게 해주고자 어린이 전문 사역 기관에 위탁해서 가게 되었다.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교육관 아동부실에 모두 모여서 강원도 둔내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평일이라 가는 길이 막히지 않아 2시간 40분만에 둔내 유스호스텔에 도착했다. 미리 준비해 간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숙소에 짐을 풀었다.

각각의 교회에서 달려온 900여명이 큰 강당에 모여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일이었다. 우리 팀은 B조에 편성되어 '어린이천국'이라는 신나는 게임프로그램을 먼저 하게 되었다. 교회별로 줄을

서거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임(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새총쓰기, 링던지기, 다트게임)과 페이스페인팅, 엽서만들기, 사진찍기 등의 코너를 돌아다니는 분위기가 자유롭고 좋았다. 시간이 모자라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리고 나서 '와이큐키즈'라는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드렸다.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함께할 수 있는 와이큐키즈 예배는 아이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았다. 예배 후 아이들이 PK공연을 볼 동안 교사들은 옆의 중강당으로 옮겨가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현재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영상을 보고 특강을 들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실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Jesus Party' 시간을 가졌다. 간단한 간식과 함께 촛불을 켜고 6명 정도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그룹을 나누어 서로에 관해 더 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다. 1대1로 대화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이들과 차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나누고 손을 맞잡아 기도했다.

다음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캠프스포츠 시간이 있었다. 풀장을 설치해 둔 에어 슬라이딩을 비롯해 자유물놀이에 이르기까지 시원한 물을 이용한 7종의 게임을 즐기며 시간가는 줄 몰랐다.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자유물놀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점심식사를 하고 창조의 방, 기도의 방, 소금의 방, 구원의 방, 선교의 방, 십자가의 방, 등 신앙코스를 돌며 코너학습을 했다. 물놀이 후라서 피곤하기도 했을 텐데 각 방을 돌며 진지한 태도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에 모두들 열심이였다.

저녁식사를 하고 탈인형극을 본 뒤 부흥집회 시간을 가졌다. 먼저 천국과 죄에 대한 설교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회개기도와 성령을 모시는 기도를 했다.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부흥집회였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한명한명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아이들도 스스로 열성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주 의미 있었다. 그 작은 가슴

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확실히 새겨졌음을 우리 모두는 확신한다.

신나고 즐겁게 여름수련회를 다녀온 후 첫 주일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모습은 교사들을 감동시켰다. 앞으로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행하셨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발견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다.

## 제1기 안동부부교실

4쌍의 부부(김경원·김한나, 이진호·송미진, 이정인·남명희, 조상원·안경진)가 제1기안동부부교실을 수료하였다. 이들은 지난 6월13일부터 5회(매주 토요일 오후6시-9시)에 걸쳐서 강의 및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총남 서천 명공제에서 1박2일의 수련회를 가졌다.

### "그리스도의 편지"설교를 듣고

황금석 안수집사

오늘도 내리는 비와같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두를 흠뻑 적셨다.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만, 은혜를 받고 말았다.(ㄱ,ㄱ,) 지난 목요일 나는 아내와 함께 원주에 볼일이 있어 길을 떠나게 되었다, 시내를 벗어나자, 나는 차 안 , 거울 밑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띠었다. 뻘한 일,, 이제부터 막 가자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나의 행동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나를 반성하게 한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이유는, 여행 중에 혹시 나의 행동이 다른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줄까봐서 미리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하자는 그런 속셈 이었다. 혹시나 말이다. 그래도 그럴지, 안수집사 째 되어가지고,

나도 편지긴 편지인데, 허우데는(겔봉투는) 멀쩡해가지고 속에 있는 편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행동해야겠다. 문뜩!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예수쟁이"란 말이 그리워진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삶을 사니까, 믿

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샘이 나서 붙여 준 "거룩한 별명"이었다. 이제는 예수쟁이란 말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되기 때문이다. 슬프다. 분명한 명품인데, 짝퉁처럼 행동 하다니, 목사님 말씀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도 그냥 대충 속으로 2초 감사 드린것도, 여러분이 옥해 주시기 바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 나의 주인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주인님 ! 감사히 먹겠습니다."로

## 예담원(지적 장애인 공동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년회장 이광섭

우리들, 수모임 후 정신없이 봉고차에 꾸깃꾸깃 탑승하여 예담원으로 출발했지요. 예담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GEE(맞지?)를 부르자, 아니다 무조건을 불러야 분위기가 산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담원 형제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을지 열심히 준비 했답니다. 그렇게 예담원에 도착해서 원장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예담원 형제들과 만났지요. '나랑 다른데... 인사는 어떻게 하지?' '무사히 이 시간을 보낼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속에서 예담원 형제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너무도 순수하고 해맑게 인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 내가 도대체 무슨 걱정을 했던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걱정인가요? 그저 서로 즐겁게 '놀면'되는 것을 ^^ 안동교회 청년들, 그리고 예담원 형제들..그리고 저! 그냥 신나게 놀았습니다. 트로트와 찬송가와 댄스곡을 오가면서, 이 몸쓸 몸으로 열심히 춤추고(그냥 몸부림에 더..:), 박수치고, 노래하고 ^^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이 못난 회장놈은 그래도 교회에서 온거니깐 마지막은 찬송가다! 라는 생각에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찬송가로 마무리를 하려는데 한 형제님이 오셔서 노래방 책을 내미시며 한 곡을 가리키더군요. '아... 그래도 마지막은 찬송가로 마무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잠시 난처해하는 와중, 그 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당연히도 찬송가였네요. 이런 바보..... 그렇습니다.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또 억지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어렵히 하신텐데 혼자 걱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혼자 머쓱해하며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선가 손이 하나 슬쩍 나타나서 마이크를 가져가더군요. 네. 방금 그 분이셨습니다; '아아아'라며 부르는 그분의 목소리와 내밀고 있던 손이 향한 곳이 하나님에 더 가까운 듯 합니다. 함께했던 우리.. 안중혁 목사님,아림, 수정, 대하, 유정, 예은, 완기,인철, 경진, 을지누님, 장환형님, 찬엽, 준현, 정민, 주희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죠? ^^ 출발 직전에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던 은주, 헤미 그리고 나머지 우리 AD청년들! 다음엔 모두 함께해요~ ^^ 여러가지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많을 듯 해요. 우리 적극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ㅋㅋ

## 중보기도, 전도대 7월 모임

권혜순 권사

안재훈 목사님의 인도로 안동교회 찬양집; 6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12장 "나 가진 재물 없으나", 93장 "왜 나만 겪는 고난"을 부른 후에 통성기도를 하였습니다. 삶의 고난 중에서도 부름 받는 중보기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에게 힘주세요.' 또한 기도대상자, 전도대상자 이름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씨 뿌리는 주일에 263명의 이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것을 각자 우리들 입에 준비시켜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씨 뿌린 일들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황영태 목사님의 설교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또 선한 일로 인도하는 힘은 중보기도와 전도의 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전도가 성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청지기의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좋은 열매 있음을 믿으며 실천해야 합니다. 263명을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구원"을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려고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 신체연령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데, 알지 못했던, 쓰지 못하였던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00년을 맞은 안동교회가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면서 이 전까지 못 보았던,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역사가 안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시는 황영태 목사님의 마침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에 윤장섭 집사님을 돌보시느라 못 오신 신경희 권사님께서 제공하신 점심을 황영태 목사님의 식사기도 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보기도 회원과, 안동전도 대원에게 모임이 여름방학으로 들어가지만 각자 각자가 정해 놓은 시간에 계속해서 중보기도와 전도할 것을, 그리고 학업, 취업을 위하여 애쓰는 젊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신선자 권사님께서 광고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세계적인 주석 만들자.

총회 표준주석편찬위원회(위원장:구약 김중은, 신약 이종윤)는 지난 21일 서울교회(이종윤목사) 비전홀에서 집필자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경과 보고 및 향후 추후일정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집필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편찬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원고마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일정부분의 원고 분량이 마감되면 감독위원회에서 감수와 수정을 담당기로 했다. 또 표준주석의 발간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는 주석 영문판을 제작하는데 재투자하기로 결의했으며 한국교계는 물론 세계적인 주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한 뜻을 모았다.

교육자원부 총무 김치성목사는 차기(제95회) 총회에서 교단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주석에 대해서 오는 2012년 완간 시점에 교단 목회자와 교회에서 전집을 구입,

교단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데 앞장 서 줄 것을 건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성경 개역개정판 번역의 문제점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한 임원회의 뜻에 따라 집필위원들에게 개정개역판(4판)에 대한 번역상의 문제점을 연구 및 확인하여 보고기로 했다.

### 선교사 이중 멤버십 '불가'

총회 파송 선교사의 이중멤버십이 앞으로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총회 정치부(부장:인명진)는 지난 24일 총회 제3연수실에서 제93-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 파송 선교사의 이중멤버십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부는 '총회 선교사의 이중멤버십'에 관한 세계선교부장의 질의에 대해 현재 해외선교노회 구성을 위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만큼, 본교단 파송 선교사가 해외 교단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이번 선교사 이중멤버십에 대한 정리는 앞으로 이중멤버십에 가입된 선교사들이 본교단 파송 선교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해외한인총회 소속으로 남을 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이중멤버십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세계선교부가 해외 한인교회 사역 전체를 포기하고 타문화권선교만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심각하게 고려됐다. 결국 정치부는 이중멤버십이 해외선교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치부는 또 총회 헌법에 본교단과 동역관계에 있는 해외 교단과는 '이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상으로 이중멤버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선교사들은 그동안 한인교회를 사역하는 경우에, 소속 노회가 없어 임직식을 갖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목회사역에도 어려움이 많아 해외한인총회에 이중멤버십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제93회 총회시, 헌의안으로 상정됐던 해외한인선교노회 설립 건이 한 회기 연구과정을 거쳐 오는 제94회 총회에 보고될 예정인 만큼, 이중멤버십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해외 한인교회를 사역하는 선교사

들은 해외한인선교노회를 통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졸업 기수 통일한다.

하나의 신학대학원을 위한 첫 단추로 '신학교 졸업기수 통일안'이 제94회 총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총회 신학교육부(부장:이남순)는 지난 21일 총회 제2연수실에서 제93회기 6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하나의 신학대학원 청원건과 서울장신대 총장 연임청원권 등을 결의했다. 제94회 총회를 앞두고 93회기 마지막 실행위원회로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하나의 신학대학원'과 관련해 '졸업기수를 통일하는 안'만 오는 제94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으며 회기동안 연구했던 나머지 안건은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신학교육부가 내놓은 '졸업기수를 하나로 통일하는 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총회 산하 7개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 기수를 하나로 통합해 '총회 산하 신학대학원 통합 00기'로 명칭을 부르는데 맞춰져

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7개 신학대학원이 설립된 이후, 동기 의식과 기수 의식이 사라지게 돼 같은 교단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지만 상호간의 교류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각 신학대학원 졸업생들도 졸업기수를 통일시켜 줄 것을 수차례에 호소해 왔다는 점을 청원 이유로 제시했다. 신학교육부는 기수통일을 이룰 때에 교단 내의 모든 목회자와 7개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의 교류와 정체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제94회 총회에 졸업 기수 통일안을 청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학교육부는 이날 실행위원회를 통해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이사회에서 요청한 문성모총장 연임 청원건을 허락하고 오는 제94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 문화의 시대, 목회 이렇게

총회 문화법인(이사장:이광선 사무총장:최은호)은 올 하반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의 시대를 맞아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23일 동송교

회(서정오목사)에서 승효상건축가(이로재대표·동송교회 안수집사)를 초청, '문화 시대의 교회건축과 공간 운영,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문화목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승 대표는 건축사에서의 교회건축의 역사를 소개하고, "진실성이 없이 건축양식만 흉내내는 교회건축은 '사이비'접근"이라고 지적하고 "교회건축은 무엇보다 지역적 특성을 흡수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보다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의 신앙까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회건축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그는 또 "교회건축은 못자국 하나까지 일관된 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교회건축을 할 때 건축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교회와 목회자의 목회철학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 대표는 최근 교회 예배당이 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경건성'과 '자유로움'에 대해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교회만의 경건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가변무대를 적절하게 설치하면 한 공간에서 예배당과 무대가 적절하게 어우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주일에 한번 대예배를 제외하고는 예배공간의 활용성이 낮다는 고민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미리 건축가와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할 것을 제안했으며 파티션을 통해 공간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 제94회 총회, 여성총대 12명으로 역대 최다

본교단 제94회 총회에 12명의 여성총대가 참석하게 돼 역대 최다 여성 참석율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82회 총회 때 안정옥(안양) 정인화(서울) 정희경(강남)장로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총회에 입성한 이후 여성총대들의 수는 미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들어 여성총대들은 90회 때 9명을 기점으로 21회때 10명, 92회 때는 한명 늘어난 11명, 93회 때는 다시 수가 줄어 10명의 여성총대가 총회에 나오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역대 최다 참석으로 기록될 94회 총회에는 강석

회장로(안양) 권복주장로(서울서) 김예식목사(서울 강남) 민경자장로(서울북) 박상주장로(충청) 이광순 목사(서울) 이신자장로(부산남) 이숙자장로(서울강남) 정순복장로(대전서) 최춘애장로(순천) 홍기숙장로(서울강남) 홍종춘장로(충북·이상 가나다 순) 등 모두 12명의 여성 총대가 참석한다. 이 중 서울 강남노회가 무려 3명의 여성총대를 파송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지난 25일 여전도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제94회 교단총회 여성총대 간담회를 열고 여전도회가 평신도위원회를 통해 현의하는 여성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이영원장로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이경희장로의 기도, 김예식목사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 후 여성총대들은 여전도회가 현의한 안건들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번 총회에 여전도회는 △계속교육원 졸업생들에게 장로고시 중 성경과목을 면제해 주는 건 △여성총대 10% 할당제 제도화 △총회 훈련원 세미나 및 전국 신학생 통합수련회 시 여성지도력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정 의무화 △총회 산하 전 교회의 여전도회 조직과 여전도회 고유명칭 사용 의무화 및 여전도회주일 성수 등 4가지 현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 여성장로 활동 점진적으로 증가

지난 8~1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진행된 제35회 전국장로수련회에 본교단 여성 장로 7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황명호) 내에서 여성 장로들의 참여와 활동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매년 4천 명이 넘는 남성 회원들이 참석하며 상대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여장로회(회장:정순복)와 각 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장로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국장로회연합회도 여장로들을 위한 전용 숙소를 마련하는 등 배려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여장로회 정순복회장(선창교회)는 "아직은 수련회 참석 인원이 전체 회원의 10분의 1 정도"라고 밝히며, "연합 활동을 하면서 가정도 돌봐야 하는 여장로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와 가족들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 회장은 "이번 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통해 여성 장로들의 연합과 협력을 모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하며, "남성 회원들이 소속 노회 여장로들을 돌보며 협력하는 모습에서 양성의 아름다운 화합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CTS "민형사상 모든 방법 동원해 총력 대응 하겠다"

CTS 기독교TV(사장:감경철)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순수복음 방송인 CTS를 부당하게 음해하는 세력에 침묵으로 대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벗고 강력하게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노량진 사옥에서 예정 합동 총회와 일부교회, 몇몇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CTS 송영우부사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CTS는 최근

열린 제68차 이사회에서 "CTS를 음해하는 무고행위에 정면 대응해 법적 조치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기독교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CTS와 관련한 논란들은 노량진 신사옥 건축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건물주인 (주)조은닷컴과 CTS 간의 지분 분할의 적법성 여부, 장비구입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감경철사장 취임 이후 발생한 전반적인 사안들이 담겨져 있다. 문제를 제기한 측의 한 관계자는 "CTS가 순수매출과 적정원가를 투입해 손익분기점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영을 했을 경우, 자체적으로도 현재의 사옥을 건축할 수 있었다"며, 감경철사장의 개인회사인 조은닷컴이 건물주가 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건축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CTS는 "당시는 CTS가 부도상태여서 어떤 신용거래도 할수 없었다. 조은닷컴의 보증과 지원이 절실했다. 조은닷컴은 건축 후 CTS가 부담한 1백34억원 외에 소요된 전체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명하고, 건축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1백억원 대 방송장비를 2,3배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TS는 "경쟁입찰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장처럼 1백억원대 장비와 시설공사를 한 적도, 비싼 가격에 구매한 적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CTS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반적인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가운데 CTS개혁전국목회자협의회, CTS개혁전국교수연합회 등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CTS 감경철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도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CTS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식량 위기 극복 앞장서자

전세계 인구 6분의 1이 기아로 허덕이는 가운데 세계루터교연맹(LWF)이 전세계 루터교인들에게 세계 식량 위기 타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 세계교회협의회(WCC) 기관지인 ENI가 보도했다. 세계루터교연맹은 오는 2010년 7월 20~27일 독일 슈튜트가르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주제로

열릴 총회를 앞두고 발행하는 루터교 세계 정보(Lutheran World Information) 특별판 서문에 세계 음식 안보 위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특별 기사들이 실렸다고 밝혔다. 특별판 서문을 쓴 한 이 슈마엘 노코 목사는 "'일용할 양식'은 루터교회의 전세계 가족들에게 윤리적 도덕적 신학적 문제일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자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많은 이들이 가난, 억압, 굶주림, 그리고 창조와 풍성함에 다가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써 우리가 이익중심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 번성한 현재의 권력과 적들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라고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 특별판에는 '무엇이 충분한 것인가? -식량 안보와 주권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식량 안보, 교육, 기후변화, 영토 주권 등에 관한 주제에 다양한 의견들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이번 호에는 공정한 식량분배 시스템의 필요성과 루터교인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항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 사례, 성서·신

학적 관점, 교회에 도움이 될 목회 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47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세계루터교연맹은 현재 79개 국 1백40개 회원 교단, 6백85만 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다.

## 여성 군종목사 제도

최근 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을 위한 교회와 총회의 적극적인 연구와 준비가 시급하다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서리:장영일)에서 열린 제14회 장신대 여동문회 여름수련회에서 이광순교수(선교신학)가 '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군부대 내에서 한 명의 신부와 여러 명의 수녀들이 함께 활동하는 천주교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돌봄에 대한 그리움을 지닌 병사들이 수녀들의 방문과 돌봄과 대화에 좋은 호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면서 "효율적인 군 선교를 위하여 여성 군종목사를 허락해 파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그는 여성 군종목사 제도 설립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군내의 효과적인 목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장병들이 심리적 불안과 내면적 갈등 등을 해소하지 못해 자살 또는 사건 사고와 연루되고 있다"는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남성 군종장교를 목회자보다는 군 간부로 여기고 있는 만큼 바른 목회상담이 어렵다"면서 "특히 계속 늘어나는 여군들도 섬세한 목회적 돌봄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모성적 본성을 갖춘 여성 군종목사가 남성 군종목사 목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이 교수는 "전문적인 여성 군종목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남성 위주의 신학교육을 양성 공동교육과 훈련으로 바꾸는 것이 준비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또 "교회와 총회가 여성 군종목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는 국방부 및 정부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여성 군종목사 제도가 합법적으로 신설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총회는 여성 군종목사의 위치와 역할 활동영역 개발, 생활비 마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군종목사 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시대와 글로벌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뿐 아니라 군 자체에서도 종교지도자와 군종목사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이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여성 군종목사 제도 설립을 통해 군선교 현장은 황금어장 안의 가두리장과 같아서 민족복음화의 직행통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련회 개회예배는 여동문화 회장 이광순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선애교수의 기도, 이종윤목사가 '여군목제도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 [총화·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복춘우물가

2009년 9월호 · 통권 제194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종 혁

발행일 : 2009년 9월 6일